



조간 제7981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음력 10월 20일)

## 체류·휴식·치유...전남 '웰니스 섬 관광시대' 연다

도 '2026 섬 방문의 해'...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8개 테마 섬별 특화 콘텐츠...섬 관광브랜드 정립  
국가사업 추진...관광 활성화 시너지 극대화 기대

전남도가 2026년을 '전남 섬 방문의 해'로 운영. 지역 고유의 섬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으로 섬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전후해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섬 관광을 체류형·웰니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섬별 특화 콘텐츠 개발과 온·오프라인 홍보체계 강화,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종합 전략을 마련해 '전남 섬 관광 브랜드'를 확립할 계획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8억5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2026년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본격 추진한다.

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섬 관광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당일형·단편형 관광에서 벗어나 전남 섬을 체류·경험 중심의 여행지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웰니스(WELLNESS) 8개 테마(치유·휴식·애코 투어리즘 등)를 기반으로 섬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자연환경·경관·생물문화 등 각 섬이 가진 고유성에 테마를 결합해 여행사와 플랫폼이 상품을 기획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숙박 할인권과 상품 인터티브를 제공해 시장 주도의 상품 확산을 유도한다. 단순한 관광지 방문을 넘어 체류와 휴식, 치유와 미식까지 담아내는 '전남형 섬 여행'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홍보·마케팅 체계도 전면 재정비된다. 전남도는 '문화가 있는 달'과 연계한 월별 섬 프로그램을 구성해 계절·지역별 매력을 반영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 프로그램 중심의 '달빛 문화 학교'는 미식화·영화제·토크 프로그램 등으로 섬의 밤을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를 더하고,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온라인 확산 전략도 강화된다. 전남도

는 메가 인플루언서와 섬 전문 마케터가 참여하는 SNS 챌린지를 기획하고 있으며, 8월 8일 '섬의 날'에는 유튜브 88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온라인 홍보전을 추진한다.

해시태그 캠페인을 결합해 전남 섬 관광의 노출을 체계적인 확산 흐름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관광객이 실제 여행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수용태세 보완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숙박·운송·식당·안내체계 등 기본 인프라를 점검하고, 다국어 안내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콘텐츠와 홍보가 강화되도 현장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방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직접 연계되는 '여수 섬 반값 여행' 사업도 눈길을 끈다. 여수 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1팀당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박람회 기간에는 2만팀(팀당 2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하며 총 20억원(국비 10억원·지방비 10억원)이 투입된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진 기자 swg3318@gwangnam.co.kr



“사랑의 선물 주머니”로 따뜻한 겨울나세요” 8일 오전 광주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에서 박재홍회장과 여성봉사특별지원위원회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선물 주머니’를 제작하고 있다. ‘사랑의 선물 주머니’는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지원위원회가 직접 만든 수건 주머니에 김, 멸치, 미역, 삼파, 바다로션 등 13가지 부식 및 생필품을 담아 광주·전남 지역 독거노인 300세대에 전달된다.

### 기획예산처 장관에 안도걸·임기근 물망

전남출신 발탁 관심...이르면 11일 발표할 듯

기획예산처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근 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정책 컨트론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방점을 둔 재정경제부와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인건비와 신규 조직 운영비가 반영되면서 내년 1월 2일 공식 출범 밑그림이 마련됐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기획처 인선은 이르면 기재부의 내내 업무보고 예정일인 11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처 초대 장관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안 의원은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호남 출신 예산실장을 역임했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다. 1965년 화순출생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코로나19 기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5차례나 진두지휘한 경험도 있다.

임 차관은 예산 실무를 오래 맡아온 정동 관료 출신이다. 1968년 해남 출생으로 송원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차관은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 과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안도걸

임기근

류 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을 맡은 재정전문가다. 1969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에서 경제학과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전까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경험으로 재정에 능통하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대표적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기틀을 만들었고,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세수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신정훈 “도민주권, 새 길 열겠다” 전남지사 출마 선언

민생·산업·인구위기 정면 지적...생활비 제일 싼 전남 등 약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8일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전남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도민주권정부로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전남도의회 출마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언제나 우리 편이었던 신정훈이, ‘이재명의 약속’으로, 전남에 다시 희망의 새 길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인구 200만 시대를 약속했지만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6만2000명”이라며 “전남 소멸지수가 0.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험’ 단계”라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2024년 성장률이 -1.9%로 전국 17위”라며

“100조원을 집행하고도 민생과 지역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생·산업·인구·기후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동·서부 소외론’을 거론한 최근 읍직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갈등을 부추겨 지역을 나누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도민주권’을 제시했다. 그는 △도의 권한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 강화 △도의회 내 예산정책기구 설치 △도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속의민주주의 구현 등을 약속하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공약도 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8일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시했다. 그는 “전남을 ‘생활비가 가장 싼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대중교통 무상 교통 △AI 기반 DRT·마을택시·순환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작품공모

시·단편소설·동화·평론 부문 ... 12월 17일(수) 접수 마감

광남일보가 한국문학과 지역문학을 이끌면서 미래 K-문학을 선도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예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6 광남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더할 패기 있는 신예 작가들의 당찬 도전전을 기다립니다. 광남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학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부문 및 요령

- 시 부문 : 5편(당선작 1편·상금 150만원)  
- 단편소설 부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당선작 1편·상금 200만원)  
- 동 화 부 문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당선작 1편·상금 150만원)  
- 평 론 부 문 (문학·미술·무용·연극 등)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당선작 1편·100만원)

응모요령

- 원고는 A4 용지에 출력.  
- 응모작은 미발표 순수창작품일 것.  
- 당선작의 경우 추후 표절 및 동일 작품 복수 응모는 당선을 취소함.  
- 갈봉투에 응모분야와 작품 편수 기재.  
- 원고 끝에 이름(필명일 경우 본명 명기)과 나이, 약력, 주소, 전화번호 명기할 것.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된 날로부터 1년간 광남일보에 있음.  
- 가작은 당선작의 상금 50%를 지급함.

접수마감 및 당선작 발표

-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7시까지 도착 작품에 한함  
- 2026년 1월 1일자 신년호 지면

접수처 및 문의

-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광남일보 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 (062)370-7090, 7234.